

임실 소충·사선문화상 수상자 발표

대상·부영그룹 이종근 회장
특별상·문화예술·모범공직
경제·교육·의약·농업
향토봉사·특별공로상 등
총 11명 수상... 28일 시상식

전북의 대표 향토문화축제인 임실 사선문화제전위원회(위원장 양영두)는 제34회 소충·사선문화상 공적 심사위원회를 열고, 수상자를 심사 확정 발표했다. 대상에 부영그룹 이종근(84) 회장을 선정했다. 부영그룹은 건설산업과 경제발전에 무에서 유를 창조한 업적을 이뤘다.

특히 인구 감소에 따른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원에게 출생자 1명에게 1억 원을 지원하여 부영 출산 효과를 타 기업으로 확산 대한민국 사회전반에 큰 관심과 청년들에게 희망을 준 공적으로 대상에 선정했다. 특별상에는 윤주경(66) 10대 독립기념관장·FTIT 시험 연구위원장을 선정했다. 윤봉길 애국지사의 장손녀로서 21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광복70주년기념 추진단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FTIT 원장으로 산업 발전과 국민 안전 기업 경쟁력 확보등 한국사회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다. 특별상 수상자는 강천석(77) 조선일보 고문으로 1975년 신문기자로 언론에 몸을 담아 조선일보 주필, 칼럼리스트로서 크게 명성을 얻었다. 정론 직필로 사회 정의를 주창하여 대한민국 언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지대하다. 문화예술 부문에는 장순환(65) 한양대 무용과 교수 한반도 춤 연구소 소장을 선정했다. 국가무형유산 이수자이고 전통 춤의 원형 전



이종근 윤주경 강천석 장순환 황규철



김금석 이남호 신충식 민경천 백현규 최진희

승 및 교육활동을 통해 전통 춤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모범공직부문에는 충청북도 황규철(59) 옥천군수를 지방자치단체 6회 연속 우수상, 충북지역 사회발전에 헌신한공으로, 경제부문에는 전북경제발전에 앞장선 전주그랜드힐스턴호텔 김금석 회장(70)을 선정했다. 교육부문에는 이남호(66) 전 전북연구원장을 전북교육발전에 헌신한공으로 선정했다. 의약부문에는 신충식(56) 예수병원 원장을 대국민의료와 의료공백최소화에 앞장서온 공으로 선정했다. 농업부문에는 민경천(68) 사)전국한우협회 중앙회 회장을 한우산업 발전에 앞장서 온 업적으로 선정했고, 향토봉사부문에는 백현규(69) 전주 백송회관 대표(전 전주시의회 의원)를 선정했다. 백 대표는 전주시 주민자치위원장과 천사축제 조직위원장을 맡아 어려운 이웃을 돕는일에 헌신봉사했다. 특별공로상에는 최진희(68)를 국민가수로써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선정했다.

시상식은 오는 28일 오후 4시 국민관광지사 선대광장 특설무대에서 진행된다. 2025 나라사랑·고향사랑 '사선문화제'는 전북임실 국민관광지 사선대에서 25부터 28일까지 4일간 열리며, 풍년맞이 길놀이 공연을 시작으로신위례, 제39회 사선녀선발전국대회, 제3회 전국학생국악경연대회(교육부장관상), 국악대공연 전국농악경연대회(국회의장상), 소충·사선문화상 시상식, 향토음식경연, SBS·JTV방송사 축하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또한 상설행사도 농특산물 홍보 판매전시, 향토먹거리, 풍물시장이 개장된다. 양영두 임실 사선문화제전위원장은 "지구 기후변화에 의한 환경변화로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농촌, 농업이 힘든 가운데 향토문화 축제 행사를 정성껏 준비했다"며 "한류문화가 세계를 압도하듯, 더욱 분발하여 창립 40년을 맞아 새롭게 도약하는 사선문화제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 국민과 전북특별자치도민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 '제30회 필봉마을굿 축제' 18~21일 개최

2025년 제30회 필봉마을굿 축제가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임실필봉문화촌에서 펼쳐진다. 올해로 30회를 맞이하는 필봉마을굿 축제는 전북특별자치도 대표 공연 예술제로 임실필봉농악을 비롯한 국가 무형유산 공연을 한자리에서 만끽할 수 있는 신명 나는 축제이다. 주요 행사로는 무형유산 초청공연, 중국민족 예술단공연, 창작연희곡, 필봉아리랑 달곡, 전국전통연희 경연대회, 농악 역사 기획 전시 등이 마련되어 있다. 임실필봉농악을 비롯해 무형유산 초청공연에



서는 진도 씻김굿, 서울 송파산대놀이, 김천 금릉빛대농악, 인천 은율탈춤, 대구 날피북춤

등 다양한 국가무형문화재를 즐길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축제에는 자신의 기량을 맘껏 발휘할 수 있는 전국전통연희개인놀이 경연대회와 전국양산송배 농악 경연대회, 누구나 참여 가능한 필봉을 느낄 수 있는 굿즈 만들기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여 풍성한 축제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심 민 군수는 "30년간 변함없이 이어 온 필봉마을굿 축제는 대한민국의 대표 전통문화 축제로 우리의 소중한 전통 공연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인근의 많은 지역 주민과 도시민들이 가족, 연인, 지인분들과 함께 즐겨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한복모델 선발대회’ 전주서 열린다

20일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한복 모델을 뽑는 선발대회가 오는 20일 전주에서 열린다. 전주시와 JTV전주방송이 공동 주최하는 '2025 한복모델선발대회 인 코리아'의 최종본선이 오는 20일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개최된다. 고등학생부터 만75세까지 내·외국인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이번 대회에는 서울과 부산, 수원, 대구, 대전, 광주, 전주 등 전국 각지의 예선을 통과한 우수한 참가자들이 본선에 올라 한복의 전통미와 현대적 감각을 접목한 다양한 스타일을 선보일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단순한 모델 퍼포먼스를 넘어 한복에 담긴 문화적 의미와 아름다움을 무대 위에서 표현하며, 심사위원들은 한복의 어울림과 한국적인 자태 등을 심사하게 된다. 이날 본선대회 결과 대상 수상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수여되며, 최우



수상 수상자에게는 전주시장상이 수여된다. /권희성 기자

‘부안국가유산 야행’ 19~20일 개최

전시·공연·체험 등 총 33개 프로그램 다채롭게 운영

부안군은 오는 19일~20일 국가민속유산으로 지정된 동문안·서문안 당산을 비롯한 당산유산 밀집구역에서 '2025 부안국가유산 야행(이하 부안야행)'이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진행된다. '부안야행'은 2022년부터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에 지속적으로 선정되어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하는 문화행사로 '2025 부안야행'은 부안군과 백두기회가 추진한다. '부안야행'은 국가유산이 밀집된 도심에서 문화유산을 향유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부안야행'은 부안을 내에 밀집된 당산유산을 중심으로 조선시대부터 근현대에 조성된 부안의 다양한 유·무형유산과 자연유산, 부안의 역사와 변천 등을 자유롭게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전시·공연·체험 등 총 33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특히 '부안야행'은 당산유산의 의미를 알리고 이를 통해 당산문화의 핵심인 대동단결을 콘텐츠화한 행사이다. '부안야행'의 구성은 야경(夜景)·야로(夜路)·야설(夜設)·야시(夜市)·야화(夜畵)·야식(夜食)·야시(夜市)·야숙(夜宿) 총 8가지이다. 각 구성은 '야경, 빛으로 물든 국가유산거리'를 걷다., '야로, 이야기꾼에게 듣는 생생 부안 역사', '야설, 무형유산으로부터 역사와 문화를 보고 듣다.', '야시, 내가 만든 국가유산',

'야화, 사진과 그림으로 알아보는 국가유산 그리고 나', '야식, 음식과 함께 즐기는 야행', '야시, 부안의 문화가 담긴 특산물', '야숙, 부안에서의 하룻밤' 등으로 운영된다. 부안야행을 알리는 선포식은 오는 19일 오후 7시부터 부안관아가 위치한 군청 일원 자연에너지파크에서 열린다. 선포식전 행사로 부안의 대표 유·무형유산인 당산문화를 재현한 부안당산제와 부안농악 등 무형유산 공연을 시작으로 다양한 국가무형유산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부안의 역사를 들려주는 '부안의 이야기꾼을 찾아라' 등 프로그램을 완성하면 부안야행 배지 등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또 국가무형유산 줄타기, 사자탈을 쓴 봉산탈춤, 택견, 취타대 등의 공연과 고려청자 만들기, 줄타리기 체험, 인형극, 점방산 봉수 이야기 소풍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하는 '2025 부안 국가유산 야행'은 국가유산을 통해 부안의 문화도시로서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번 열리는 부안 국가유산 야행 역시 모든 분이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방문객을 맞이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렸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사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인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관공각

내아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제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